

[종합·해설]

민주 27일·우리 30일 광주서 필승전진대회

■ 여야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 돌입

우리, 광주시장후보 여론조사 방법 주내 결정

민주, 26일 박광태·박준영후보 공동 출마회견

5·31 지방선거를 1개월 남지 않은 이번 주 (24~30일)부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선거 필승 전진대회를 잇따라 갖는다.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지역에서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마무리하는 등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한다.

◇열린우리당=오는 28일 오후 광주 구동 실내체육관에서 광주 남구청장 후보와 광역의원 남구 제2선거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실시한다. 이 경선이 완료되면 열린우리당은 광주 지역 5개 구청장 후보를 모두 확정하게 된다. 또 광주시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3번의 방송토론회를 23일까지 완료하고 이번 주 내로 여론조사 방법과 실시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를 실시, 빠르면 다

음 주 초계 후보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또 30일 정동영 당의장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 등 시당 주요 당직자, 임택 동구청장 후보·이형석 북구청장 후보 등 광주지역 후보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지방선거 필승전진대회를 갖고 선거 승리를 다짐한다.

◇민주당=24일 오전 10시 한평 문화체육센터에서 이낙연 원내대표(영광·함평지역위원장)와 안병호 함평군수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 당원전진대회'를 갖고 조재환 사무총장의 체포로 한때 흔들렸던 당심을 추스르고 선거 승리를 결의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공동으로

지방선거 출마 공동기자회견을 갖는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중심으로 이끌어 광주·전남에서 만능의 압승을 거둔다는 전략이다.

이어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한화갑 대표와 주요당직자,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유태영 동구청장 후보·전갑길 광산구청장 후보 등 광주지역 모든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지방선거 필승전진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민노당=일찌감치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후보를 선출하고 어느 당보다 먼저 선거전에 뛰어든 민노당은 지난 18일 광주시당 공동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당의 모든 역량을 이번 선거에 결집하기로 했다. 오는 28일에는 1천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민·학생의 지지선언 및 입당식이 광주시당에서 열린다.

민노당은 또 지난 21일 선출대회에서 박용두 전남지사 후보를 선출, 광주·전남지역 후보 진영을 모두 구축하고 조만간 전남지역 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23일 충남 연기에서 열린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서 오영교 전남지사후보(오른쪽 두번째)의 손을 잡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사진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공항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서울시장 경선주자 '메시지' 경쟁

홍준표-‘맞장투사론’
맹형규-‘조강지처론’
오세훈-‘눈덩이론’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경선주자인 홍준표 오세훈 맹형규 후보가 경선 막판의 표심을 붙들어줄 강력한 ‘메시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선발주자로 거센 ‘오풍(오세훈 바람)’에 시달려온 홍준표, 맹형규 후보는 각각 ‘맞장투사론’과 ‘조강지처론’으로 오풍차단에 나섰

다. ‘맞장투사론’은 이번 선거가 노무현 정권 3년 반을 심판하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이미지보다는 강한 야성(野性)을 갖춘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야 한다는 논리.

‘조강지처론’은 두 번의 대선 패배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당이 바닥까지 추락했을 때에도 당과 함께 한 배를 버려서는 안된다는 ‘감성적’ 메시지.

그동안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밀어올린다는 ‘필승 후보론’으로 홍, 맹 두 후보의 ‘이미지 정치’ 공세에 맞서왔던 오 후보는 최근 ‘눈덩이론’과 ‘풍자론’으로 대응 논리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확정

열린우리 시당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위원장 김재균)은 지난 21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광주시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자로 이명자 북녘어린이 영양빵공장 광주 사업단장, 2순위 후보자로 조기철 남

구의원, 3순위자로 양금숙 세무사를 각각 선출했다.

시당은 또 22일 오전 한국방송광고공사 6층에서 남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을 실시, 1순위 후보로 최민순 광주시당 노인복지특별위원장, 2순위 후보로 문성선 전 남구위원을 각각 확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전주언 예비후보 교육 공약 제시

○민주당 소속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교육 환경 개선, 안전 통학로 확보, 잔디운동장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 메카 서구’ 공약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관내 47개 초중고교에 부족한 가로등을 설치하고 실외 화장실을 신축하겠다”며 “또 광주시의 1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과 연계, 연차적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어 소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구 예비후보 도서관 공약 발표

○무소속 신현구 광주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전사회적인 독서 열풍 확산을 위해 ‘가족도서관(작은 도서관)’ 설립 추진” 등의 도서관 공약을 발표했다. 신 후보는 또 ▲신규 장서 구입 예산 확대 ▲주민 장서 기증운동 전개 ▲공공도서관과 회원 공유 및 도서 공유 연계 등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김옥기씨 전남도의원 출마 선언

○김옥기 전 광주일보 부장이 무소속으로 나주시 제2선거구 전남도의원에 출마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김 후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15년동안 언론인으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후보는 “나주를 혁신도시와 전남도청, 광주시를 잇는 삼각축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특화작물개발로 농촌경제기반을 다지고 지방공단 확충으로 인구 유입을 꾀하며 장애우 취업 및 노인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도농통합시인 나주시 동지역 학생들이 놓여온 특례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나후된 나주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 벌여왔으며, 시체육회 사무국장으로서 영산포초등학교 축구부 창단 등에 힘을 쏟아왔다.

문용주씨 도의원 출마 예비후보 등록

○문용주 법무사(56)가 최근 보성 제1선거구 전남도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문 예비후보는 “그동안 쌓아온 법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잘 사는 보성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참신하고 도덕적인 인물들이 도의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수원시 호남향우회장을 맡고 있는 문 예비후보는 보성을 동원동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다음달 1일 오전 11시 개소식을 개최한다.

김용준 구례군수 예비후보 사퇴

○김용준(62) 열린우리당 구례군수 예비후보는 22일 같은 당 소속 서기동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우윤근 국회의원과 당원 등 30여명이 지켜본 가운데 “군민의 후보 단일화 열망을 받들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오직 후보 단일화만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과 번민을 거듭하다 이 길을 택했다”고 토로했다. 당초 우리당의 공천 절차를 거쳐 구례군 제2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여론을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구례=김동희기자 dhkim /보성=안구일기자 giahn@

조영택 지지 유도 ‘줄세우기’ 논란

광주 일부 국회의원, 기초장·광역의원 후보와 회합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난 22일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회합을 가져 ‘줄세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당 양형일, 김동철, 지병문 의원은 이날 밤 광주시 동구 총정로 5가 한 호프집에서 3명의 구청장 후보를 포함, 30여명의 광주지역 지방선거 후보자를 초청, 시장 후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조영택 후보도 참석했다.

문제는 이 자리를 주선한 의원들이 그동안 조영택 후보를 지지해왔다는 데 있다. 참석자들도 대부분 이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후보들이어서 자연스럽게 조 후보에 대한 지지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조 후보와 기념사진을 찍게한 뒤 “확대해서 각 후보 사무실에 걸어달라”고 주문하는가 하면, 다른 의원은 “내가 지지하는 후보(조영택)를 지지하지 않으면 선거기간 동안 한 번도 가서 들지 않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구청장 후보는 “조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어찌나”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광역의원 후보가 “지금까지 열린우리당 광주 지역 경선이 잡음없이 잘 이뤄져 오고 있는데 공정한 계임을 위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런 도임을 갖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하면서 지지성명은 무산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날 참석한 3명의 국회의원들은 선거관리위원장·공천심사위원장·예비후보 재심위원장 등 광주시당의 선거 관련직을 맡고 있는 뿐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로서 해당지역 후보들의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공정경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영택 후보와 광주시장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재균 후보 측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광주시당의 선거직을 맡고 있는 당직자로서 누구보다도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끝까지 조 후보를 돕고자 한다면 선거 관련직을 내놓고 정정당당하게 조 후보의 조직을 돕는 게 옳겠다”고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택개발 | TEL:062) 262-8606 / 26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임/임도/양수

青碩 C&S

TEL: 061-512-0347 / 061-512-1097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텍수방수제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5월 1일

361-8111